



2020년 5월 26일  
사이타마교구주교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제 8 차)

###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의 성당활동에 대해

성령강림대축일을 맞이 하려는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 어서 오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긴급사태선언」이 5월 25일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확대의 위험이 없어진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시련의 시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엄밀히 말해 생물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선언」 속에서 살아가며, 사람이 서로의 접촉에 의해 확산시키지 않는다면, 멋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은, 계속하여, 「3 밀(밀폐공간, 밀집장소, 밀접한 거리)」를 피하며, 불필요하며 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이동 등을 피하며, 활동의 재개에는 신중히 하여야 함이 권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시하며, 감염확대가 다시 오지 않기를 기원하며, 제 8차의 지침을 내립니다.

사이타마 교구에서는

### 얼마간은, 현 상태를 유지 하겠습니다.

즉

- 공개미사(신자가 참가하는 미사)의 중지는 얼마간 유지되었습니다.
- 그동안은 계속하여, 주일미사참례의무를 면제합니다.
- 공개미사재개의 시기나 재개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공지하겠습니다.
- 공개미사는, 신자들이 타성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접교구인 동경 교구와 동시에 재개하며, 또한, 교구내 모든 성당이 동시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 미사 이외의 성당활동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신경써 주십시오.  
「제 7 차」의 공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공지에 앞서, 교구내의 모든 사제/부제 분들께, 선언해제후 성당활동재개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답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신도 여러분께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확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이와 마음을 하나로 하며, 사려깊게 행동하시고, 성당활동이 하루라도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베 마리아 !